

日本 水産業 成長의 綜合分析 (I)

朴 鍾 國*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Growth of Japanese Fisheries (I)

Park, Chong-Guk

目 次

| | |
|-----------------------|------------------------|
| I. 序論 | IV. 수산경영의 변화** |
| II. 일본수산업의 산업발전분석 | 1. 수산경영체의 분류 |
| 1. 수산업이란 무엇인가? | 2. 어가경영 |
| 2. 어업발전과 그 한계 | 3. 중소수산업의 경영 |
| 3. 수산자원의 보존과 이용의 모순관계 | 4. 대형수산업의 경영 |
| 4. 어업발전의 기타 제약요인 | V. 일본 수산경영정책의 전개 |
| 5. 수산업발전의 방향 | 1. 수산정책에 대하여 |
| 6. 수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치의 변화 | 2. 수산경영정책의 역사적 전개 |
| III. 수산경제의 흐름 | 3. 어업구조 개선정책 |
| 1. 수산물 소비생활의 변화 | 4. 수산금융정책 |
| 2. 수산물 수급 | 5. 유통·가격정책 |
| 3. 수산물 무역 | 6. 어업재해보상제도 |
| 4. 수산물 유통 | VI. 결론 및 우리나라 수산업에의 제언 |
| 5. 수산물 가격 | 참고문헌 |
| | SUMMARY |

I. 序論

최근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미국의 통상개방 압력 등 개방화, 자유무역 환경하에서 수산업 특히, 어업은 국내적으로는 해양오염·어장축소·자원고갈이 심화되고 대외적으로는 공해어장의 규제강화, UN 해양환경보호 등으로 어업여건이 악화되고 있는데 선원임금의 상승 및 구인난, 생산원가의 상승 등으로 경영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영합리화·노사관계근대화 등 제반 노력이 뒤따라

*水産廳 事務官.

**紙面사정으로 IV, V, VI장은 다음 號에 계속하여 게재할 예정이다.

야 할 것이다. 우선 어획물 선도제고와 가공기술 개발을 통한 상품 부가가치의 향상과 자원의 유효이용, 그리고 어선 성력화로 인력·생산원가의 절감 및 합리적인 어장관리를 통한 자원생산성의 향상 등 경영개선의 노력과 아울러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재무구조의 개선이라든가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영체질의 개선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어업여건과 경영불안정속에서 한계산업으로서의 어업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수산업의 산업으로서의 발전방향과 그의 수행정책방향에 대하여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에 대하여 본 논문은 먼저 세계제일의 수산국가인 이웃 일본을 모델로 하여 그러한 문제의식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파악해 보고자 한 것이다.

한일양국은 유사한 어식문화와 어업제도를 갖고 있으나 수산업의 산업발전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어업구조 개선정책의 실시시기를 기점으로 할 때 약 30년의 격차가 있지 않나 가늠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 논문은 특히 1960년대 고도성장기 이후의 일본수산업의 산업으로서의 발전, 수산경제의 흐름, 수산기업 경영의 변화 및 수산정책의 전개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이웃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수산업의 발전책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라 하겠다.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일본수산업에 적용된 제반정책과 방법이 한국수산업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우리의 어식문화와 의식구조의 바탕과 수산업의 여건에 맞춰서 외국의 문물·제도가 변용되어야 할 것이다. 즉 외국의 제도 그 자체보다는 그 제도의 본질 또는 운영원리라든가 기본적인 접근방법, 배경 등을 이해하여 자국의 환경에 적절히 소화되도록 응용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외국의 문물·제도의 올바른 이해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자국환경에의 창조적 응용도 쉽지 않은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금후 더욱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임을 부기하여 두는 바이다.

II. 일본수산업의 산업발전분석

1. 수산업이란 무엇인가?

수산업을 행정대상으로서 파악하는 경우나 경제적 혹은 경영적 측면에서 연구하는 경우에도 수산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실은 어업만을 이야기하는 어업=수산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흔히 있다. 그러나 어업경영 측면에서 어획물의 상품화 및 수급조절을 위하여 어업과 가공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일본에 양륙되는 어업생산물중 65%가 가공용으로 이용되는 것을 보더라도 수산가공업은 어획물의 최대의 판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수산업의 개념 규정에 있어서는 생산기술적인 관점에서 「어업, 양식업, 수산가공업」이라고 하는 3부분설이

통설이 되어 있고,¹⁾ 산업관점에서 수산업의 본질을 「수산생물의 상품생산 기구」로 파악하고 있는 견해도 있다.²⁾

여기에서는 수산업의 산업으로서의 발전형태를 고려하고, 외부관련산업과의 관계를 명백히 하면서 독립된 하나의 산업체계로서 파악하기 위하여 수산업의 본질을 「수산생물의 상품생산 기구, 곧 원료생산과 제조·판매·유통」의 전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두고자 한다.

2. 어업발전과 그 한계

1) 어업생산력의 발전

시기별로 어업사정은 다르나 고도성장기 이후에 어업투자를 촉진하여 어업생산을 발전시킨 주요한 요인으로서 수산물 수요의 확대, 어업기술의 발전, 원양어장의 확대, 어업금융의 지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³⁾ 그러나 여기에 일본어업발전을 담당한 주체로서 인간적 에너지와 기업의 역할을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즉 해양민족으로서의 우수한 어업노동력과 왕성한 기업가정신이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선진화된 오늘의 일본에 있어서도 어업이 사양산업화되지 않고 계속 성장산업으로서 유지되어 나가고 있는 비결은 무엇보다도 국민이 수산물을 선호하고 정부가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는 데 있다고 하겠다(〈표 1〉 참조).

〈表 1〉 漁業部門 生産量 (單位: 톤)

| 區分 \ 年度 | 1960 | 1965 | 1970 | 1975 | 1980 | 1985 | 1989 |
|-----------|-------|-------|-------|--------|--------|--------|--------|
| 總 生 産 量 | 6,192 | 6,908 | 9,315 | 10,545 | 11,122 | 12,171 | 11,913 |
| 海 面 漁 業 | 6,102 | 6,761 | 9,147 | 10,346 | 10,900 | 11,965 | 11,711 |
| 遠 洋 漁 業 | 1,410 | 1,733 | 3,423 | 3,168 | 2,167 | 2,111 | 1,976 |
| 沖 合 漁 業 | 2,514 | 2,787 | 3,279 | 4,469 | 5,705 | 6,498 | 6,340 |
| 沿 岸 漁 業 | 1,893 | 1,861 | 1,889 | 1,935 | 2,037 | 2,268 | 2,123 |
| 養 殖 業 | 284 | 380 | 549 | 773 | 9,922 | 1,088 | 1,272 |
| 內 水 面 漁 業 | 90 | 146 | 168 | 199 | 221 | 206 | 201 |

資料: 水産統計指標, 漁業·養殖業生産統計年報, 1990.

註) 遠洋漁業: 公海부근외의 沿岸國의 200해리수역중에서 조업하는 어업을 말한다.

沖合漁業: 沿岸水域의 沖合에서 10톤이상의 어선을 사용해서 일본 200해리수역 안에서 조업하는 어업을 말한다.

沿岸漁業: 10톤미만의 어선을 사용해서 距岸 또는 2-4Km의 沿岸水域에서 조업하는 어업을 말한다.

內水面漁業: 內水面養殖業을 포함.

1) 八木庸夫, 漁家經營論, 北斗書房, 1979, p. 11.

2) 捲川虎三, 水産經濟學, 恒星閣, 1933, p. 17.

3) 川崎健(共), 200海里時代と日本の水産, 恒星社恒星閣, 1981, p. 21.

論文: 平澤豊, 水産資源の有効利用, 1976.

2) 어업생산력의 확대와 그 모순

특히 최근 일본 어업생산력의 발전은 과잉투자를 낳게 되었고 그 결과 단위어업노력당생산량(CPUE)의 저하와 자원의 불완전이용을 가져오게 되었다. 단위어업노력당어획량이 저하됨에 따라 한편으로는 같은 양의 어획을 올리는 데 항해일수가 늘고 어업지출이 증가해 경영을 압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체의 소형화, 고급어로부터 저급어로 어획이 옮겨지게 되고 아울러 수입증가가 저해되었다. 이 때문에 어업자는 어선을 대형화하여 보다 먼바다로 진출하게 됨으로써 어업의 악순환이 진행되었다.⁴⁾ 이러한 악순환은 처녀어장의 존재, 魚價의 지속적인 상승, 기술향상에 의한 생산원가의 지속적 저하라는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더우기 어장축소와 魚價상승이 둔화된 2백해리 시대에 들어서는 기술개발에 의한 어업경영유지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런데 어로기술의 개발도 어로작업의 평면적·비연속적인 특성과 수산자원의 한계적·자원재생적 성격으로 규모의 생산성을 발휘치 못하고 노동시간의 연장 등 노동강화의 방향으로 진행되는 한편, 노동장비율은 높으나 오히려 물적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高코스트형 기계생산체라고 하는 왜곡된 경영구조의 형성을 초래하게 되었다.⁵⁾

3) 양식어업의 한계

어업발전은 생산활동면에서 수산자원의 제약, 어장의 축소, 기술개발의 특성으로 그 한계가 있고, 경영활동면에서도 어획량 감소, 어가의 정체, 어업노동의 기피 등으로 인한 어업경영의 불안정 때문에 어업도 어느 단계 이상의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한계성이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양식업은 기술적으로 채취어업에 비하여 인위적인 관리의 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에 경영면에서 확실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는 데서 보다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하기 쉽다. 과연 그런지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표 2> 참조).

〈表 2〉 日本漁業의 漁業生産成長 (1970~1985)

| 區分 | 成長率 | 生産量에서 본 成長* | | 漁業生産指數에서 본 成長** | |
|--------|-----|-------------|---------|-----------------|---------|
| | | 85년/70년 | 年間평균신장율 | 85년/70년 | 年間평균신장율 |
| 漁業總計 | | 130.5% | 1.8% | 152.8% | 2.8% |
| 沿岸漁勞漁業 | | 119.5% | 1.2% | 144.2% | 2.5% |
| 海面養殖業 | | 198.2% | 4.7% | 340.0% | 8.5% |
| 沖合漁業 | | 198.8% | 4.7% | 234.0% | 5.8% |
| 遠洋漁業 | | 61.6% | -3.3% | 76.8% | -2.8% |
| 內水面漁業 | | 122.6% | 1.4% | 176.2% | 3.8% |

資料：轉機に立つ日本水産業, 1988, p. 23.

註) * 1970년부터 1985년까지 15년간의 物量的인 増加傾向의 모습을 표시.

** 上記 15年間, 經濟的인 意味를 포함한 漁業의 實質的인 成長度을 표시.

4) 平澤豊, 日本の漁業, 日本放送出版協會, 1981, pp. 230~231.

5) 新川傳助, 水産經濟研究, 恒星社恒星閣, 1968, p. 27.

일반적으로 해면양식업의 발전은 다음 4단계로 간략히 정리해 볼 수 있다.⁶⁾ 제1단계는 전 통기로서 자연조건에 의존하는 단계이며, 제2단계는 확장기로서 어장획득경쟁이 치열하고 어장이용이 집약화하는 단계이다. 제3단계는 경영난의 표면화기로서 개별경영단위의 자율적 어장관리와 행정관청의 어장관리의 통제가 어려워지면서 과밀양식의 폐해가 나타나는 단계이다. 제4단계는 재편기로서 어장노후화가 진전됨에 따라 새로운 양식어장의 개발이 진행된 단계이다. 이러한 발전과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식업도 성장과정에 있어서 여러가지 제약이 수반되고 있다. 그 요인은 첫째, 어장·시장의 제약과 과당경쟁, 둘째, 개별경영에 의한 어장관리의 실패, 셋째, 어장노후화로 인한 리스크(Risk)의 증대와 자본조달의 곤란에 있다고 한다. 따라서 양식어업에 있어서도 많은 제약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⁷⁾

3. 수산자원의 보존과 이용의 모순관계

1) 자원이용의 최적원리

이미 수산관계 국제회의 등을 통하여 잘 알려지고 있는 바와 같이 현재까지 개발된 수산자원관리기법으로서 일반화되어 있는 것은 MSY, MEY이론이다. 이 이론에 대하여는 자원고갈의 우려를 더욱 고려한 동태 MEY이론이라든가 체장제한에 대한 어획규제도 중요하다는 어획이론과 후생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자원관리기준에 대하여 사회성 확보가 결여되어 있다는 등의 비판이 지적되고 있다. 또 2백해리 실시에 따라 미국이 만들어 낸 OY기준은 수산자원관리정책이라기 보다는 미국자본의 육성보호, 해외시장의 확보를 위한 자국경제정책에 그 본질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⁸⁾

이와 같은 관리기법에서도 일반적으로 자원관리기준은 가변적이다. 그것은 기준을 명확히 확립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자원관리기준이 확립되어 온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 점은 더우기 자원관리의 절실한 필요성에 비하여 자원관리는 참으로 난해한 문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자원관리가 성공한 사례는 북태평양 Halibut어업조약 이외에는 드물다. 이 경우에도 어업구조 그 자체는 경제적으로 비능률적인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어업에 있어서 어장의 국제적 관리는 실패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실패가 2백해리라고 하는 해양분할의 새로운 해양질서를 낳게 한 한 원인이 된 셈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⁹⁾

6) 長谷川彰(共), 新海洋時代の漁業, 農山漁村文化協會, 1988, p. 174.

7) 平澤豊, 水産讀本, 東洋經濟新報社, 1979, p. 75.

海老原宏(共), 現代水産經濟論, 北斗書房, 1982, p. 262.

8) 長谷川章 監修, 漁業管理研究, 成山堂, 1991, p. 59.

9) 平澤豊, 水産讀本, 東洋經濟新報社, 1979, p. 35.

2) 어업관리의 현실

각국에 실제 적용하고 있는 어업관리를 보면 그 목표와 기준이 각국의 정치·사회체제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 있다. 곧 자본주의국가에서는 MEY, 사회주의국가에서는 MSY, 그 외에 OY라든가 영세연안어업의 보호, 스포츠펠싱(Sports Fishing), 해양환경보전 등의 요인을 고려하고 있다.

미국은 어획량의 제한에 중점을 두고 신규참여를 가능케 하고 있다. 이것은 자원유지가 가능한 장점은 있으나 과당경쟁으로 우수한 어업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으며, 자본·노동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하는 단점도 있다.

일본은 어획노력량의 제한에 중점을 두어 신규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이것은 허가척수내의 경쟁여지가 남아 있고, 어업관리제도 그 자체는 어업법에 의한 계급적 이해관계의 조정이라고 하는 역사적 성격을 띄고 있음으로써 합리적 자원관리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보아 어업자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발해 갈 것인가에 대하여는 두가지 이념의 씨앗이 있다.¹⁰⁾ 그 하나는 생산력억압=자원보존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원을 정태적으로 파악하고 기술생산력은 발전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주어진 자원의 이용을 절약하여 장래에도 계속해 나가기 위하여 생산기술 수준을 억제하고자 하는 이념인 것이다. 다른 하나는 어업자원을 동태적으로 파악하고 어업자원상태에 맞춰 기술생산력이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이념적 견해이다.

이와 같이 어업자원개발의 이념적 견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원관리의 문제가 현실화되는 계기는 경영문제에 있는 경우가 많다. 즉 생산성의 저하, 수익성의 체감경향이라고 하는 경영문제를 남획이라고 하는 자원문제에 전가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자원관리문제는 상기 두가지 이념중에서 기술과 자원경제의 전진적 통합에 의한 동태적 산업발전의 개념에 입각한 후자의 이념을 반영해야 할 것이며, 자원문제를 경영문제로 보고 접근해 나감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해결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어업발전의 기타 제약요인

1) 어업노동력의 확보

어업생산이나 어업경영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으로 어업노동력의 부족문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일본에 있어서는 1965년 이후 특히 중요한 문제로 顯在化되어 오다가 최근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게 되었다(<표 3> 참조).

10) 伊豆川淺吉(共), 水産經營學, 恒星社恒星閣, 1966, p. 35.

〈表 3〉 漁業就業者數의 推移

(單位：千名)

| 區分 \ 年度 | 1965 | 1970 | 1975 | 1980 | 1985 |
|---------|-------|-------|-------|-------|-------|
| 沿岸漁業 | 476.4 | 428.3 | 369.5 | 353.4 | 336.3 |
| 沖合・遠洋漁業 | 133.6 | 121.1 | 108.0 | 104.0 | 95.3 |
| 總 數 | 612.0 | 549.4 | 477.5 | 457.4 | 431.1 |
| 男 子 | 502.5 | 437.9 | 397.6 | 376.9 | 356.5 |
| 女 子 | 109.5 | 111.5 | 80.0 | 80.5 | 76.5 |

資料：水産廳，水産統計指標，1988.

새로운 어선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전개되어 온 것도 그 이면에는 보험제(깃가림제)하에서
의 어업노동력의 확보 때문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 문제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의한
노동력의 이동이라든가 어업의 직업적 이미지(Image) 등 사회·경제적 요인과 어업노동의
해상노동으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노동력의 감소가 불가피한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다.
어업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노임수준의 상승, 노동환경의 개선을 꾀하고, 거기에 수반
되는 지출의 증대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성력화와 생산성의 향상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일본에 있어서는 자본장비의 고도화, 어획능률의 향상, 선내 거주시설의 개선을 위한
투자증대가 한편에서는 감가상각비나 금리부담의 증대를 초래하여 경영위기를 자초하는 경우
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었다. 이러한 선상 근로조건 개선과 시설투자의 합리화를 도
모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노사관계의 확립이 불가피한 과제라 할 것이다. 특히 중소어업 경영
자측의 경영관리나 경영의식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근대화가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
것이 노동력 확보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¹¹⁾ 어업경영이나 정책관점에서 이 사태를 정확
히 인식하고 동시에 가부장적·전근대적인 노사관계를 어떻게 하면 근대화할 수 있는가를 강
구할 것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2) 해양환경 보호

해양환경을 어떻게 보호·유지해 나갈 것인가는 수산업 존립의 중대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크게 연안어장 환경의 보호와 원양 공해어장의 해양환경 보호라고 하는 두가지로 나
누어 개략적인 고찰을 하여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의 경우에 있어도 연안어장은 임해공업, 항만건설 등을
위한 매립·간척 등으로 어장의 직접적인 상실외에 매립부근의 조류의 변화, 산란장 등 생육
장소의 파괴, 공장입지에 의한 수질오염 등으로 그 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이것에 대하여 금후의 연안지역 개발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전에 연안어장, 천해양식업을
보상에 의해서 정리하고, 피해자를 안락사시킬 것이 아니라, 매립·지역개발의 한 시스템
(System)으로 활용하는 적극적인 개발을 구상해 나가야 할 것이다.¹²⁾

11) 新井昭一, 海洋開發と漁業の諸問題, 大成出版社, 1975, pp. 277~279.

12) 海洋産業研究會, 海洋開發と産業活動, 鹿兒眩研究所出版, 1973, p. 172.

연안어장오염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최대의 피해요인은 공장폐수와 산업폐기물이다. 이러한 공해는 수산생물자원을 통하여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어장환경의 파괴 등 수산업의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해를 방지해 가기 위해서는 어민을 포함한 지역주민이 참가하는 주민운동을 제고하는 것이 그 한가지 방법이 될 것이며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된다.¹³⁾

원양어장의 환경문제에 있어서 어민들도 최근 지구환경보호의 일환으로 해양, 특히 공해어장에 대한 환경보호문제가 북태평양 오징어유자망어업과 같은 것이 해당어업의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주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해양환경문제의 제기는 과학적인 데이터(Data)에 의한 객관적인 제안보다는 동물애호정신에 의한 감정적 제안의 일면을 엿볼 수 있기는 하나 당사자로서는 재인식하여야 한다. 마치 어업활동이 해양환경파괴의 원흉인 것처럼 제안되고 있지만 바다생태계의 모든 기능이 균형있게 움직여 전체로서 조화가 유지되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임은 말할 나위 없다는 것을 어업자 스스로도 주지해야 한다.

5. 수산업발전의 방향

일본에 있어서 어로·양식·가공을 포함한 수산업의 산업발전방향은 운영면에서는 자유경쟁으로부터 자원관리형으로 진화되어 가고 있으며, 형태면에 있어서는 해양개발과 식품산업으로 전환하여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자원관리형 어업

일본에 있어서 자원관리형 어업의 개념은 자원약탈형 어업과 구조불황어업의 재편성의 일환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여기에서는 그간 정부규제에 의한 강제적인 자원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 아래 어업자집단에 의한 자율적인 자원관리를 자원관리형어업이라 이해하고자 한다.¹⁴⁾

이러한 어업자의 자율적인 자원관리형어업은 그 목표를 MSY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업수익의 향상에 두고 있으며, 선취경쟁의 논리가 아니라 경쟁의 자발적인 제어와 개별경영적 대응으로부터 집단대응에 그 의의를 두고 있다. 무릇 어장 또는 어업자원의 보전·유지를 위하여는 전어업자의 공동행위가 필요한데도 이것을 이용하는 생산주체는 개별적으로 또는 경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하는 모순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¹⁵⁾

자원관리형어업의 유형에는 자원유지 증대형, 조업질서 및 안전조업 확립형, 어가유지 및 부가가치 향상형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관리방식도 감선, 망목사이즈의 확대, 어구사용

13) 平澤豊, 水産讀本, 東洋經濟新報社, 1973, pp. 197~218.

14) 長谷川彰, "資源管理型漁業の論理とタ人ブ," 漁業經濟研究, 33卷, 2・3號, 1989.

15) 平澤豊, 資源管理型漁業へ移行, 北斗書房, 1986, p. 47.

량의 삭감 등 定型化된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구체적으로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2) 해양개발

수산업은 이미 해양개발, 그중에서 특히 자원개발의 한 분야로서 발전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연안에서 근해로, 근해에서 원양으로 진출해 나가는 어장확대시대의 해양개발과 200해리시대에 들어서서 원양에서 근해로, 근해에서 연안으로 축소하는 어장축소시대의 해양개발은 그 성격이 다르다. 200해리시대의 해양개발의 의의는 신어장의 개발과 연안어장의 재개발을 의미한다.¹⁶⁾ 해양개발기술을 수산분야에만 한정하여 보면 기존어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이용 수산자원을 개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연안어장의 재개발은 종래 개발의 결과 초래한 자원고갈과 해양오염으로부터의 자원 배양과 어장환경 정비를 축으로 하는 재개발에서 연안어장의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원배양을 위한 종묘의 생산 및 방류와 어장환경의 개선을 포함한 재배어업으로의 진보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종래 방류사업과 어장조성사업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오다가 보다 종합적으로 보다 광대한 면적에서 시스템(System)화 된 것이 해양목장이라 할 수 있다. 또 재배어업·해양목장의 개발을 인접하는 육지의 지역개발과 연계시키는 것을 마리노베이션(Marinovation) 구상이라 한다. 이러한 것은 수산업을 핵으로 한 연안수역 및 인접 지역의 종합적인 정비개발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사업에는 대규모 건설회사·철강회사 등의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식품산업

일반적으로 식품산업은 식품제조업, 식품유통업, 외식산업으로 크게 세가지로 구분된다. 수산업도 이 세가지 부문으로 각각 발전해 가고 있다. 곧 대규모 수산기업은 원래 종합식품제조업으로 변하기 쉬운 체질을 가지고 있다. 수산가공업, 그중에서 특히 연제품가공업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저렴한 가격의 지역특산품으로서 소비대중화가 진행되었으나 시장확대에 따라 원료어의 부족을 겪기 시작하자 以西저인망어업의 저어류원료공급과 북양트롤어업의 수리미개발로 두차례의 원료전환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200해리시대에 들어 수리미공급의 부족과 가격안정성의 상실로 경영의 위기를 맞은 연제품가공업은 대두단백이나 전분 등의 混和材를 이용해 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함으로써 수산식품만으로는 그 성장에 한계가 있는 것이 나타났다.¹⁷⁾ 통조림, 魚肉소세지와 같은, 즉 농축가공업 등의 여타 식품산업으로의 진출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진출은 어획물이용의 고도화를 위한 파생효과라는 점에서 생산용구 등 여타 관련산업으로의 진출과는 다르다는 일면을 나타

16) 新井昭一, 海洋開發と漁業の諸問題, 大成出版社, 1975, p. 108.

17) 中盾興, 明日と日本水産業, 海文堂出版社, 1978, pp. 140~157.

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⁸⁾

둘째로 고도산업성장과 더불어 나타난 외식산업은 가장 큰 수산물수요라고 할 수 있다. 수산물의 국내소비증 반이상은 가정보다 외식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곧 고도성장의 결과 고도 대중소비사회의 출현으로 수산물 외식산업은 방대한 수요를 갖고 있으며 냉동수산물·활어 등을 중심으로 고급화를 진행시키고 있다고 하겠다.

셋째로 식품유통부문에 있어서는 종래의 중앙도매체계에 의한 시장내 유통기능의 저하와 수산회사와 상사에 의한 시장의 유통의 확대를 초래하고 있다. 고도성장시대 이후 수산물유통의 중점이 생선어유통으로부터 냉동어유통으로 이행됨과 더불어 수산회사는 영업부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영전략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970년대 이후의 수산물유통의 변화는 물류업자나 활어유통업자에 의한 생선·활어유통의 증대라 할 수 있다.¹⁹⁾ 이것은 시장의 업자가 생선어패류시장의 성숙화속에서 다양화되고 있는 소비자의 필요한 욕구에 보다 정확히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6. 수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치의 변화

일본이나 한국에 있어서 수산업의 국민경제적 역할은 주로 국민에게 식료 특히, 동물성 단백질 식료를 공급하는 데에 있다. 축산업이 미발달된 시기에 있어서는 동물성단백질 공급의 대부분을 수산물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따라 식생활의 변화, 축산업의 발달에 의해서 그 지위는 점차 저하되어 가고 있다(〈표 4〉 참조).

〈表 4〉 漁業關聯 國民經濟指標

(單位: %)

| 主要指標 | 年度 | 1965 | 1975 | 1985 |
|------------------|----|------|------|------|
| 漁業生産所得/國民所得 | | 1.21 | 0.81 | 0.51 |
| 漁家人口/總人口 | | 2.1 | 1.3 | 1.0 |
| 漁家就業人口/全産業就業人口 | | 1.2 | 0.8 | 0.8 |
| 水産物輸入額/總輸入額 | | 1.3 | 2.2 | 3.8 |
| 漁業融資殘高/全金融機關融資殘高 | | 1.2 | 0.8 | 0.5 |
| 水産物支出額 食料支出額 | | 13.6 | 15.6 | 15.1 |
| (肉·乳·卵類支出의 경우) | | 15.9 | 16.9 | 14.6 |
| (엔겔係數=食料/消費支出) | | 40.0 | 34.3 | 29.2 |

資料: 新海洋時代の漁業, 1988, p. 182.

일본의 1980년도 국민경제지표를 보면 국민소득중 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0.66%로서 이것은 1965년도 1.21%에 비하면 절반에 머무르고 있다. 또 전산업 취업자수에 대하여 어업 취업자수의 비율은 1965년도 1.2%에서 0.8%로 저하되고 있으며 또한 어업 共同化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18) 新川傳助, 水産經濟研究, 恒星社恒星閣, 1968, p. 204.

19) 西日本漁業經濟學會, 轉機に立つ日本水産業, 1988, pp. 163~170.

그러나 어업에 수산식품제조업(0.22%)과 식품유통업(0.84%), 외식산업(0.45%)를 포함한 수산식품산업을 추가하면 그 지위는 약 2%로 높아진다. 또한 여기에 비식품공업(진주약 세사리 등), 자재공급산업(제빙, 어망 등), 관련투자(어항, 어선 등)등의 관련산업까지를 합치더라도 2.3%를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표 5〉 참조).

〈表 5〉 國內總生産에 의한 漁業과 關聯産業의 位置 (1980年) (單位: 億圓, 千名)

| 區分 | 年度 | 國內總生産 | 從業員數 | 備 考 |
|------------|----|----------------|-------------|--|
| 1. 漁業 | | 15,110 | 467 | |
| 2. 關聯産業 | | 19,060 | 888 | 것갈류·통조림 등 眞珠약세사리 製水·漁網·로프 漁港·漁船 |
| (1) 水産食品工業 | | 5,390 | | |
| (2) 非食品工業 | | 150 | | |
| (3) 資材供給産業 | | 910 | | |
| (4) 關連投資 | | 1,670 | | |
| (5) 飲食店 | | 10,940 | | |
| 3. 流通産業 | | 20,630 | 459 | 都賣·小賣業 陸上·水上運輸 |
| (1) 商業 | | 19,030 | | |
| (2) 運輸業 | | 1,600 | | |
| 4. 合計 | | 54,800(2.3) | 1,814(3.1) | |
| 5. 全産業 | | 2,399,410(100) | 58,596(100) | |

資料: 21世紀の水産業へのアプローチ, 1988, p. 3.
(): 구성비.

III. 수산경제의 흐름

1. 수산물 소비생활의 변화

일반적으로 일본의 식문화라고 하면 열을 가하여 살균하고 냄새를 없애기 위해 향신료를 다량으로 사용해서 새로운 맛을 창조하는 서양요리와는 달리 자연적으로 갖는 맛을 살린 진미를 중시하는 데 특색이 있다. 그 때문에 생선의 선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일본인의 식습관에서는, ① 사시미, 스시 등의 생식용, ② 구이·냄비요리를 주로 하는 조리용, ③ 가공용이라고 하는 미각의 서열이 확립되어 있다.²⁰⁾

수산물소비의 발자취를 시기별로 보면 기아에 허덕이던 1950년대까지는 영양의 양적 충족이 수산물과제였으며, ②와 ③을 중심으로 하는 정어리, 오징어, 간고등어, 고등어 등 다획성 저가적어를 주체로 하는 소비구조였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의 고도성장기에는 전기간을

20) 小野征一郎, 起死海生, 日本經濟評論社, 1990, p. 6.

통하여 식생활의 혁명이라고 부를 정도로 급격한 변화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수산물에 있어서는 오징어를 제외한 다핵성 저가어의 후퇴와 ①을 중심으로 한 고가격어(참치, 새우, 방어, 연어 등)로 소비의 중심이 이행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1970년대말까지 지속하였다. 1970년대 후반 이후의 저성장기에는 동물성 단백질 공급에 있어서 격심한 경합관계에 있는 육류와 생선의 대체관계가 진행되어 1976년 이후 肉主水從현상이 나타나고, 그동안 강한 수요로서 생선소비를 주도해 오던 고가격어도 가격하락과 더불어 「魚이탈」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표 6〉 참조).

〈表 6〉 1人1日當 供給 動物性 蛋白質量의 推移 (單位: gr)

| 區分 \ 年度 | 1965年 | 1970年 | 1975年 | 1980年 | 1985年 |
|---------|-------|-------|-------|-------|-------|
| 合 計 | 25.8 | 31.1 | 34.9 | 38.7 | 41.5 |
| 水 産 物 | 15.5 | 16.0 | 17.7 | 18.0 | 18.5 |
| 畜産物 小計 | 10.3 | 15.1 | 17.2 | 20.7 | 23.0 |
| 肉類 | 3.5 | 6.2 | 8.4 | 11.0 | 12.4 |
| 鶏卵 | 3.8 | 4.9 | 4.6 | 4.8 | 5.0 |
| 牛乳・乳製品 | 3.0 | 4.0 | 4.2 | 4.9 | 5.6 |

資料: 魚, 21世紀へのプログラム, 1986, p. 141.

이 시기에는 외식산업이 번창하는 가운데 생선소비는 동물성 단백질이라는 영양가치 차원에서가 아니라 외식수요의 하나로서 식도락화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최근에는 EPA, DHA 등 고도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포함한 中性脂肪과 혈중 콜레스테롤(Cholesterol)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 健康論을 배후로 魚의 특성이 강조되는 소비 패턴(Pattern)으로 변모해 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2. 수산물 수급

수요와 공급을 사후적으로 균형시킨 식료수급표에 의하면 일본에 있어서 수산물의 총수요량은 국내생산량과 수입량을 합한 총공급량에서 연내 재고량증감분을 뺀 것으로서, 그 내역은 수출량과 국내소비량으로 나누어진다. 국내소비는 또 비식용부분과 식용부분의 두가지로 나누어지고 식용부분은 가정내소비와 외식소비의 두가지로 구성된다. 이러한 수산물수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는 사전에 소비자측의 수요크기와 공급가능한 수산물총량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주요한 문제라 할 것이며 또 魚價상승의 기본적인 원인은 주로 이 수급의 격차에 있다고 할 것이다.

수산물수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는 시기별로 수요증대에 있어서는 수요측 변화의 요

인에 따라 주로 생산을 어떻게 증대시킬 것인가가 중점이 되었으나 수산물수요의 정체기에 있어서는 주로 생산의 변화에 대처하여 수입을 포함한 공급을 어떻게 조절해 나갈 것인가가 중점이 된다. 1965~1985년 20년간 수산물소비의 장기동향에 있어서 현저한 특징은 구입량의 정체현상이다. 외식을 제외한 가정내소비에 있어서 수산물의 영양섭취량(특히 동물성 단백질)은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표 7〉 참조).

〈表 7〉 1世帯1人當 年間 食品消費量의 推移 (單位: Kg)

| 年度 | 쌀 | 식빵 | 生鮮・鹽干魚介類 | | | 肉類(生鮮) |
|------|------|-----|----------|-----|------|--------|
| | | | 生鮮 | 鹽干 | 計 | |
| 1965 | 79.7 | 4.1 | 15.6 | 2.3 | 17.9 | 6.1 |
| 1970 | 63.0 | 4.9 | 15.1 | 2.8 | 17.9 | 8.2 |
| 1975 | 51.1 | 6.3 | 15.5 | 3.1 | 18.6 | 10.2 |
| 1980 | 45.0 | 6.8 | 14.6 | 3.7 | 18.3 | 12.2 |
| 1985 | 41.6 | 5.7 | 14.2 | 3.9 | 18.1 | 12.5 |

資料: 總務廳, 家計調査年報, 引用: 新海洋時代の漁業, 1988, p. 78.

또한 수산물 가계지출액은 1965~1975년間に 현저한 증가를 보였으나 1975~1985년간은 오히려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외식지출의 증가를 고려한다면 수산물 총지출액은 보합 또는 약간 증가하는 경향이라 할 수 있다(〈표 8〉 참조).

〈表 8〉 1人當 年間 食料支出額(實質)의 推移 (單位: 圓)

| 年度 | 食料總額 | 水産物計 | 生鮮魚計 | 肉類 | 肉卵乳 | 外食 |
|-------|---------|--------|--------|--------|--------|--------|
| 1965 | 168,309 | 23,481 | 11,880 | 14,089 | 25,714 | 12,157 |
| 1970 | 205,605 | 30,501 | 15,794 | 19,714 | 33,490 | 20,352 |
| 1975 | 229,171 | 36,058 | 19,243 | 25,185 | 38,794 | 26,002 |
| 1980 | 227,066 | 35,596 | 18,933 | 24,112 | 35,507 | 31,409 |
| 1985 | 226,200 | 34,236 | 17,831 | 23,801 | 33,076 | 34,109 |
| 年間신장율 | 1.7% | 2.3% | 2.5% | 3.1% | 1.6% | 14% |

資料: 總務廳, 家計調査年報, 引用: 新海洋時代の漁業, 1988, p. 79.

한편 200해리시대 이후 공급면에서의 변화를 보면 1976~1985년간 우선 외국 200해리수역 내에서의 생산량이 164만톤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총어업생산은 계속 증가되어 200해리의 영향은 총생산량의 감소라기보다는 엔高에 의한 수산물수입의 증가와 더불어 수산물공급구조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공급구조의 변화에서 보면, 첫째, 공해상의 어획증가가 38만톤, 둘째, 수입수산물의 배증으로 112만톤, 셋째, 양식수산물의 증가 약 20만톤으로 볼 때 대체적인 계산이 맞아 떨어진다. 그러나 여기에 부가해 둘 것은 연근해 수역에서 정어리류 280만톤이라는 대증산을 보았으나 그것이 국내수급상에 큰 의미를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어리류를 제외하면 기타어류는 오히려 7만톤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9〉 참조).

〈表 9〉 總供給量の 増減比較

(單位: M/T)

| 供給先 | 年度 | 1976年(a) | 1985年(b) | 増減量(a-b) |
|---------------|----|----------|----------|----------|
| 日本200海里内總供給量 | | 5,952 | 8,681 | 2,729 |
| 정어리 | | 1,065 | 3,865 | 2,800 |
| 其他 | | 4,887 | 4,816 | ▲71 |
| 外國200海里内總供給量數 | | 3,386 | 1,742 | ▲1,644 |
| 美國 | | 1,481 | 837 | ▲644 |
| 蘇聯 | | 1,090 | 316 | ▲774 |
| 中國 | | 116 | 82 | ▲34 |
| 韓國 | | 129 | 107 | ▲22 |
| 其他 | | 570 | 400 | ▲170 |
| 公海 | | 450 | 834 | 384 |
| 國內總生産 計 | | 9,788 | 11,257 | 1,469 |
| 輸入量 | | 1,136 | 2,255 | 1,119 |
| 總供給量 | | 10,924 | 10,924 | 2,588 |
| (정어리 除外) | | 9,859 | 9,647 | ▲212 |

資料: 新海洋開發時代の漁業, 1988, p. 71.

품목별 수급상황을 보면 생선·어패류는 수입의존과 양식생산의 증대에 의해서 조절되고 있으며, 가공품은 기본적으로 자급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나 최근에는 수입증가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료 및 사료는 국내생산의 증가와 아울러 수입의 감소 및 수출의 증가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표 10〉 참조).

〈表 10〉 水産物の 需要 및 供給

(單位: M/T)

| 年度・期間 | 區 分 | 需 要 | | 供 給 | | 在 庫 |
|-------|---------|--------|-------|--------|-------|-----|
| | | 國內需要 | 輸 出 | 國內生産 | 收 入 | |
| 1965 | | 6,477 | 680 | 6,502 | 655 | - |
| 1973 | | 10,151 | 991 | 10,063 | 1,079 | - |
| 1985 | | 12,263 | 1,357 | 11,464 | 2,257 | 101 |
| 増 減 量 | 65년/73년 | 3,674 | 311 | 3,561 | 424 | |
| | 73년/85년 | 2,112 | 366 | 1,401 | 1,178 | |

資料: 水産廳, 「水産統計指標」, 1988.

3. 수산물 무역

일본은 세계 최대의 수산물시장으로 세계 총수입고의 약 25%를 차지한 바 있으며 세계 중요 수산물은 어떤 형태든지 일본시장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은 1971년을 전후로 하여 고급수산물을 수출하고 수산물수입을 억제하는 개발도상국형 수산물 무역구조로부터 저급수산물 수출을 증가하고 고급수산물을 세계적으로 수입하는 선진국형 수산물 무역구조로 전환하였다(〈표 11〉 참조).²¹⁾

21) 中盾興, 明日と日本水産業, 海文堂出版社, 1978, p. 159.

〈表 11〉 水産物需要 貿易構造의 變化 (單位: M/T, 億圓)

| 年度 | 區分 | 輸 入 | | 輸 出 | | 備 考 |
|------|----|-------|--------|-----|-------|-------------|
| | | 數 量 | 金 額 | 數 量 | 金 額 | |
| 1965 | | 279 | 320 | 567 | 1,120 | |
| 1970 | | 374 | 1,146 | 579 | 1,407 | |
| 1975 | | 710 | 3,855 | 603 | 1,687 | |
| 1980 | | 1,037 | 7,643 | 727 | 2,653 | |
| 1985 | | 1,577 | 11,760 | 786 | 2,875 | 世界總輸入高의 15% |

資料: 水産廳, 「水産指標」.

이러한 무역구조의 변화에는 몇가지 대내·외적인 요인의 작용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그중 내부요인으로서 수산물 수급구조의 변화와 수산물수입의 자유화추세를 들 수 있다. 전자는 고도성장의 결과 고급어에 대한 수요가 크게 신장되어 그것이 수입을 증가시켰으며 후자의 수산물 수입자유화는 두단계로 추진되어 왔다. 제1단계는 1960년 GATT체제 가입이후 대부분의 품목이 자유화되었으며, 제2단계는 국제수지가 흑자기조로 전환한 1967년 이후 수입자유화 촉진조치에 의하여 비자유화품목이 대폭 감소되어 현재 일본에서 대량 어획되고 있는 대중어 등 IQ5품목을 제외하고는 자유품목이 되었다는 점이다(〈표 12〉 참조).

〈表 12〉 非自由化品目 (IQ 5品目)

| CCCN | 品 名 |
|-------|---|
| 03·01 | 活魚·生鮮·冷蔵·冷凍청어, 대구, 방어, 고등어, 정어리, 전갱이, 꽂치 및 대구의 알 |
| 03·02 | 鹽藏·鹽水로 절인것·乾燥한 청어, 대구, 방어, 고등어, 정어리, 전갱이, 꽂치, 대구의 알 및 煮干物 |
| 03·03 | 살아 있는 것의 生鮮·冷蔵·冷凍·鹽藏·鹽水로 절인것·乾燥한 가리비 貝柱 및 오징어 (몽고 오징어 제외) |
| 12·08 | 食用의 海草중 (돌김屬, 파래屬, 홉파래屬, 개다시마屬, 다시마屬의 것) |
| 21·07 | 調整食品중 海草의 調整食料品 (돌김屬, 파래屬, 홉파래屬, 개다시마屬, 다시마屬의 것) |

資料: 「水産年鑑」, 1989.

한편 외부요인의 변화로서는 200해리 실시, 원양어업의 국제경쟁력 감소에 의한 어업생산량의 감소와 수입확대의 촉진을 들 수 있다. 그 수입촉진요인으로서는 엔高, 미국의 시장개방압력, 활발한 해외투자를 들 수 있다.²²⁾

4. 수산물 유통

수산물시장의 특성은 생산지시장과 소비지시장이라고 하는 二重구조로 되어 있다. 채소나

22) 廣吉勝治, “水産物貿易構造의 現狀と展望,” 漁業經濟研究, 34卷, 1·2號, 1989.

육류시장과는 달리 수산업에 있어서의 생산지시장의 형성은 냉동·가공품을 제외한 어업과 양식업의 생산물을 생산근거지인 연안에서 판매되어진다. 곧 어업과 양식업의 생산물은 생산지에서 활어나 선어의 상태로 거래되고 또한 그의 선별, 가공원료의 구분처리, 선도유지 등을 위한 저장 등을 필요로 하게 된다.

수산물의 거래는 보통 산지도매상→산지중매인→소비지도매상→소비지중매인→소매상이라고 하는 5개 단계를 통해서 유통된다. 그 유통단계간의 이동에 보통 경매나 입찰에 의한 완전경쟁가격이 두번에 걸쳐 결정되는 셈이다.

소비지도매상은 집하를 겸하고 있는 데서 집하도매상이라고도 한다. 집하도매상은 산지시장에 있는 중매인을 중개로 하여 하물을 수집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집하도매상은 원칙적으로 입하거부를 할 수 없으며 그날 입하된 수산물은 전량 시장에서 거래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장유통에서는 유통업자에 의한 자의적인 수급조정이 배제되고 또한 도매업자는 판매수수료 이외의 수입을 얻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²³⁾

소비지 중앙도매시장에 있어서 집하도매상은 생산지로부터 보내온 어획물을 취급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자유경쟁에 의한 공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존재인 것이다. 그런데 1965년경부터 수산물의 유통이 선어중심으로부터 냉동어가공품 중심으로 이행하여 감으로써 시장의 유통이 더욱 활발하게 되었다. 곧 1971년을 「냉동원년」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그 해부터 중앙도매시장의 취급량에 있어서 냉동어가 선어를 따라잡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장내유통과 시장외유통의 비율이 30%대 70%에 달함으로써 유통형태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곧 시장내 유통에 있어서 집하도매상이 갖는 공적 성격의 변질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것은 자유경쟁가격의 형성이라고 하는 공적 역할을 담당해 온 집하도매상이 입하량·상장량의 조정, 산지중매인과의 담합에 의한 가격결정 등을 함으로써 점차 그 공적 기능을 잃고 판매수수료업자로부터 차익상인으로 변질하여 중매인과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게 되어 버렸다. 최근 일본에 있어서는 위탁집하가 아닌 상대매매가 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하에서는 산지의 양육량이 그대로 소비지시장에 공급된다는 보장이 없어지고 때로는 수산물이 투기매매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게 된 셈이라고 하겠다.

한편 장외유통의 한 형태로서 예상외로 바람직하게 발전한 것은 산지직송이라는 유통형태이며 국민에게 기대되는 유통기능은 안정되고 적절한 가격, 선도유지, 안정성, 풍부한 종류 등이다. 이것은 종래의 시장유통에 한정되지 않는 다양한 유통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뜻한다.

일본은 1971년 산지수산물 유통가공단지 형성산업의 추진으로 다확성어종의 양륙집중현상과 수산물 제조가공에 의한 오수처리로서 공해를 동시에 해결코자 하였다. 이 사업은 최근 수양(양륙)고의 감소, 시장의 유통의 활발 등으로 그 유통기능이 저하되고 있다. 그러나 이

23) 21世紀の水産を考える會, 魚價安定への未來戰略, 成山堂, 1989, p. 36.

사업은 1971년 도매시장법을 제정하여 종래의 위탁집하, 경매입찰 거래원칙으로부터 매입집하와 상대거래제도를 예외적으로 도입하여 시장기능의 향상을 꾀하였다. 그러나 위탁보다는 매입비중의 증대로 인하여 예외가 본류가 되고 본류가 예외가 되는 현상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5. 수산물 가격

魚價는 고도성장기에는 수요확대 및 시장의 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으나 1973년 오일쇼크(Oil Shock) 이후 축산물과의 경합이 치열해지면서 그 상승이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거기에 200해리 시대에 들어서 식료위기설이 유포, 투기, 유통상 난맥으로 어가폭등, 魚이탈현상이 일어났다. 최근 80년대에 들어서는 육류와의 치열한 가격경쟁, 가정내 소비증대의 한계, 수입수산물의 확대 등 수급안정으로 인하여 魚價의 수준은 정체상태에 있다.

냉동식품은 냉동보관에 의해 유통권의 확대, 연중상품화 등으로 어획물 가격안정에 기여해 온 바가 크나 한편 냉동보관기능은 수급조정기능과 투기기능을 겸비하고 있는 데서 1970년후반에 발생한 魚이탈현상처럼 수급의 격차를 확대시키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魚價의 문제는 때로는 유통상의 문제로서 다루어지기도 하나 수급구조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좀처럼 개선되기 어려운 과제라고 하겠다.

魚價는 산지에서는 저가, 소비지에서는 고가라고 하는 기묘한 현상이 있다. 거기에는 몇가지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어획되는 것이 전부 식료로서 유통되지 않는 점, 둘째는 대량의 저렴한 가격의 어획물은 가공원료로서 가공업체에 값싸게 팔리고 소량의 고급선어만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현상, 셋째는 냉장·냉동고를 이용한 가격조작이 가능한 점 등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겠다.²⁴⁾

생산과 소비는 상호입장이 다른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수산물의 경우도 일반적으로는 생산자·유통업자는 비싸게 팔려고 하는데 비하여 소비자는 값싼 편을 선호하게 된다. 이와 같이 양자는 이해가 상반되고 있으나 유통면에서 상호정보를 공개·교환하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관계기관은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24) 河井知康, 魚21世紀へのプログラム, 農産漁村文化協會, 1986, p. 172.